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업무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4정조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이상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규제완화 추진, 조직융합방안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대통령께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총 생산액 140조원, 종사자수 340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관련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앞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해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생산자 중심의 '공급 push 방식'에서 농수산식품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수요 pull 방식'으로 전환하고 둘째,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고 셋째,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① 농식품 유통혁신, ② 핵심인력 양성, ③ 식품산업 육성, ④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⑤ 농어업인 복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돈 버는 농어업'에 중점을 두어 농어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조직·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강국인 네덜란드(농산물 수출 세계 3위)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노력키로 했다.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면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군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 반축산농가(한우·젓소 등)는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 하기로 했다.

〈참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1. 사업 개요

- 사업주관 : 시·도(시·군·구)
-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축 산정책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촉발기금 사무국(협조)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예산 : 10,000억원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 사업기간 : 2008. 3~2008. 12
- 지원규모 : 10,000억원
 - 이차보전재원 및 소요예산 : 축산발전기금 ('08년 17,350백만원, '09년 17,350백만원)
-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후 축산발전 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지원조건 : 연리 3%, 1년 일시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 농가당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 100백만원, 양돈 200, 양계·오리 50
- 축종별 지원단가

- 한육우·낙농 : 1,200천원/두
- 양돈 : 100천원/두
- 양계·오리 : 650원/수

2. 사업신청

-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대출취 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하되, 신용조사서는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 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67쪽)을 준용

포장가금육 보존·유통 온도기준 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 2(축산물의 포장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축산물의 포장 등)에 따른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시행과 관련, 포장닭고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존·유통온도 기준의 개선을 추 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닭고기의 생산·유통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시험연구, 관련 업계와의 협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금육 보존·유통온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축산식품 별 특성에 적합하게 보존온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상 냉장실 등 시설기준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신, 축산식품 별 온도기준(가금육, -2~5℃)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규정하고 준비기간 동안 권장기준으로 관 리토록 했다.

또 닭·오리 도축업자는 온도기준 하향 조정에 맞춰 시험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자사 제품에 대한 유통기간을 재설정하되, 온도기준을 낮추더라도 닭·오리 유통기간이 매우 짧은 점(5일 내외)을 감안하여 신속히 조리·섭취토록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호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8년도 제1차 가금질병분야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3월 24일 협회·업계·학계·관계 등 30여명의 가금질병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질병분야 협의회 2008년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국내 조류질병 발생 피해 최근 현황 및 예방, 가금질병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항 등이 주요 협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닭뉴모바이라스 등 호흡기 질병과 백세미 농가에서의 가금티푸스 근절방안에 대한 현장 연구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민·관·학 합동 가금질병 연구모임인 한국가금질병연구회 주관으로 오는 4월 29일 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닭농장 HACCP적용과 발지방안을 주제로 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본 협의회에서 양창범 동물위생연구소장은 “최근 사료값 인상과 질병 등으로 인해 양계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통해 국내 양계질병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금질병분야 협의체는 양계질병 위생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수요자 측면에서의 현장애로기술 발굴을 목적으로 2005년 8월에 구성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 조류질병과가 주관하는 분야별 협의체이다.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와 조류인플루엔자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3월 18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와 조류인플루엔자에 관

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Kenji Tsukamoto 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해마다 한일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말 제39차 협의회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상호 연구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해 9월 18일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기술정보교환 및 연구인력교류 등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공동 바이러스 뱅크 구축'을 목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Kenji Tsukamoto 박사의 이번 방문은 국제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연구결과 교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를 통해 Kenji Tsukamoto 박사는 최근 4년간의 일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실적과 새로 개발한 유전자검출법(RT-PCR법을 이용한 혈청형 동정법)을 소개했다.

향후 양국은 지속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방역활동에 보조를 맞추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청정화 유지 및 동북아 방역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업체 초청 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19일 검역원 대강당 1층 세미나실에서 축산물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청,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범위 확대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성환 검역검사과장은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범위 확대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축산물 수입업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최초 수입되는 수입 축산물가공품에만 부과했던 정밀검사 수수료를 식육에도 부과하여 수입축산물 품목간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 범위를 현행 최초 수입축산물 가공품에서 과거 정밀검사 부적합 축산물, 검사 불합격물품 처리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의 동물질병감시 전문강좌 참석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홍콩중문대학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동물질병 감시의 현대적 접근법' 강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의 윤하정 박사가 참석했다.

본 강좌는 수의공중보건학이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기술 학습과 토론에 관해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영국 런던대 왕립수의과대학 교수진과 홍콩중문대학이 공동 기획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34명의 수의역학 전문가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금번 강좌 참석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의역학 관련자와 국제 공동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 강좌에 참여한 윤 박사는 “홍콩의 역학 관계 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의역학의 정보 관리 및 분석에 관한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입)은 최근 수입 냉동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를 해동하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2~3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수입 축산물의 부정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75일간을 ‘수입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2만9천여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 400명과 명예감시원 2만7천여명을 대거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업체별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수입상황을 수시로 파악, 전국 단속원에게 전파하고 최종판매단계까지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위반행위자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할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신고전화 : 1588-8112

■ 인터넷 : www.naqs.go.kr

축산과학원

경남 고성군과 기술제공 협약 체결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과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난 3월 10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친환경 축산기술 교류를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협약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5년간)이며, 축산과학원은 축산기술 협력사업과 시험연구사업, 기술교육, 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군은 행정력과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성군과 축산과학원의 축산기술지원단(친환경축산지원팀, 자급조사료생산팀)을 구성해 친환경축산 신기술의 조기 정착을 통한 생명환경농업군으로서의 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수입개방, 세계 곡물가격 상승 등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경남 고성군이

2008년도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기술지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축산과학원 오형규 지도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종합기술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축산기술의 접목과 실용화를 앞당겨 친환경적 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 친환경 축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

전남대 ·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산학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3월 19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한호재)과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의 기술 발전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안전과 위생

에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HACCP 교육관련 업무 협조 등이다.

이로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전문적인 축산 위생업무 및 기술연구는 물론, 축산물HACCP교육 실시 시 전남대 수의학과의 도움으로 호남권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HACCP제도 정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난 2월 27일에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용호)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 및 협력과 축산물 HACCP에 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취임식 개최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3월 20일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컨벤션홀에서 2백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준동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1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준동 회장을 비롯해 천강균 부회장, 최성갑 부회장, 이흥재 부회장 등 신입 회장단은 양계인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양계협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준동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양계업계는 곡물가와 원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양계인들의 대표를 맡게 돼 큰 중압감을 느끼지만 양계인들이 그동안 목말라 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단단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위기는 준비하는 사람에게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형식적인 브랜드가 아닌 정말 신뢰받는 브랜드의 닭고기와 계란을 만들고 키워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양계인들의 충실한 대변자, 홍보요원으로서 협회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신임회장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선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신임회장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선임됐다.

축단협은 지난 3월 19일 제2 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2008년 첫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신임회장 선출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을 추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4년 동안 축단협 회장을 맡았던 남호경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이준동 양계협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승호 신임회장은 지지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축산업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간략히 소감을 밝혔다. <K>

국무회의 의결, 옥수수 등 14개 사료원료 무관세화

부가세 영세율 기한도 연장

정부는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사용 증가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사료용 곡물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사료·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자 사료원료 1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료·축산업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옥수수 등 14개 사료원료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관세화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무관세화 되는 품목은 현행 무관세화 하는 품목인 ▲옥수수 ▲타피오카펠렛 ▲대두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인 ▲대두박 ▲아자박 ▲면실박 ▲유장 ▲겉보리 ▲유지 ▲매니옥칩 외에 실행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당밀

▲밀기울 ▲팜박 ▲면실피 등 모두 14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사료·축산업계에 현재보다 3백억~4백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2011년 12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북미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선을 동남아·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매니옥칩, DDGs(옥수수주정박), 매니옥주정박, 대두피 등 저렴한 대체원료 이용 확대로 사료원료 품목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료자원개발, 사료곡물저장시설(사이로) 등 민간투자 유도 및 저장시설에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